마귀의 오감마케팅, 하나님의 오감타기팅

(사무엘하 21:1~22)

1.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4.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으로 <마귀의 오감마케팅, 하나님의 오감타기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귀의 오감마케팅, 하나님의 오감타기팅'

싱가포르 항공의 스튜어디스들은 독특한 향수를 사용하는데 그 향수의 이름은 스테판 플로리디안 워터스입니다. 이 향수는 싱가포르 항공이 특별히 기획하여 특허까지 낸 향수입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뜨거운 물수건에도 이 향수가 뿌려져있습니다. 승객들에게 있어서 이 향기는 싱가포르 항공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감마케팅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승객들에게 향기를 통해서 싱가포르 항공을 좋게 기억하고, 다시금 이용하고픈 마음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오감마케팅의 대표적인 회사가 스타벅스입니다.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시각을 중시

해서 매장을 통유리로 만든다든지, 청각을 중시해서 음반사를 통째로 가져서 스타벅스만을 위한 음악을 만듭니다. 어떤 한국 사람은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이질적인 환경 탓에 불안해하다가, 스타벅스를 들어갔더니 한국에서 나오던 음악과 같은 음악이 나옴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정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촉각을 중시해서 의자나 테이블을 신경 쓰고, 매장의 바닥재까지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성시대이기 때문에 오감을 공략해서 마음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오감마케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감마케팅의 대전제는 인간의 오감이 마음과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있는 것인데, 너무나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락 후에 나타난 징후가 오감과 마음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감을 자극하는 인류의 시도는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향수를 쓰며 옷에 신경 쓰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오감과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감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과 오감을 묶는 것이야 말로 마귀의 작품이고 마귀의 마케팅인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귀는 돈이나 건강 성공 등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건강하고 성공해도 상관없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기도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만은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도록 마음을 오감과 묶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오감과 묶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는데 인간이 오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포착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오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던 것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아담이 오감마케팅의 스피릿으로 장악된 스타벅스에 들어갔다면 커피향기가 날 것이고, 혓바닥에 미각이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담은 그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판단이 필요했기에 다만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실 때에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생기고, 이 만족과 기쁨을 갖고 있는 동안에 아담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타고 아담은 행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는 편입니다만, 10시가 넘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곡을 완전히 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20번 30번씩 계속 치는데 이럴 때에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

를 붙잡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정말 유체이탈현상이 일어나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는 육체를 마음이 내려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에 분노가 사라집니다. 육체의 귀에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만 마음은 거기에 묶이질 않는데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 증거가 마음의 평정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어떤 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분노가 없습니다. 오감에 묶여서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는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하는 대신에 판단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오감으로 포착한 대상에 대해 마음을 직접적으로 반응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감으로 포착한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끌어안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오감으로 포착한 대상을 향해 화살처럼 쏴 주십니다. 우리 오감은 하나님의 뜻인 화살이 가서 꽂히는 과녁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처럼 오감타기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오감마케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감을 통해 마음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인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상품을 팔기위한 전략으로서의 오감마케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진행되어 오던 다윗의 연대기적인 서술이 끝나고 21~24장은 부록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첫 장에서 언제인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일곱 명의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기브온의 억울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때의 이 시기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은 이후이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근의 이유는 사울의 기브온 주민 학살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민족을 멸절시켜 나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자기들은 이스라엘이 멸절시켜야 되는 이민족에게 속하지 않고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하며 성막에서 사용되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수9장)
그런데 사울은 이 조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우월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아무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언약이 깨어지고 억울함에 대해 주위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는 채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일의 처벌로 기근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

시대에 다시금 공포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에 속한 자손들 일곱 명을 기브온에 내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는데 그 당시의 정황상으로는 이것이 공의를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이 사건에 이어서 다윗의 부하들이 골리앗의 출신지였던 블레셋의 가드에서 나온 네 명의 거인족의 장수를 죽였다는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같은 장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대치했던 엘라 골짜기의 전투 때로 돌아가 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군이 골리앗 앞에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때에 소년 목동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 얘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자 한 사람에게는 쩔쩔 맸던 사울이, 자기 영내에서 평화조약을 맺고 종으로 살던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우월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는 명분아래 학살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태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조약을 맺어서 마땅히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도록 허락된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고 반대로 골리앗 앞에서는 쩔쩔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문제는 바로 오감마케팅에 빠져있었던 것인데 마음이 오감에 묶여서 골리앗을 보자 그 무시무시함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전쟁 전에 이미 마음은 골리앗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영내에서 종으로 살던 기브온 사람들을 보자 그들을 업신여겼는데 이 허접한 인간들을 다 쓸어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지키고 자랑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발동했는데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대해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다윗 시대에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왕이 다스리므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누군가는 눈을 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이 이방인들 못지않은 사울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마음이 묶이지는 않았습니다. 율법과 법궤와 조상들이 증거가 돼서 가리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평안을 가졌고 골리앗에 대한 분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의 눈이 골리앗을 타깃으로 포착하자 골리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반드시 적에 대해서만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형제 가족과 친구와 직장동료나 상사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 마음의 시각이 붙어버리면 사울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며,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총괄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으로 포착된 대상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율법이 있었는데 이 율법은 행동을 위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언어를 사용하시는 신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따라서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또한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인데 오감타기팅이 다윗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의 내용은 마귀의 작품에 근거된 오감에 묶인 우리의 마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묶였다'는 것은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직접 판단하며 참여해 들어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작품에 매여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오감마케팅, 오감브랜딩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나를 어필하기 위하여 오감에 호소합니다. 오감에 묶인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감을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작품에 근거된 오감마케팅을 역이용하셔서 이루어 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이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에만 보입니다. 눈에 보였던 역사적 사건을 신앙적인 차원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감으로 포착된 모든 대상들에게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유전죄적으로 달라붙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아내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 자식들의 걱정스런 행동에 대해서조차도 십자가를 통해 오감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된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은 지금의 오감으로 포착되는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말과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감타기팅의 창조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선악과 대신에 십자가 나무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오감에 묶인 마음을 따르며 사울의 길을 걷는 대신에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수하들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걸음으로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도 적장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애꿎은 기브온 사람들만을 학살하고야 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감을 통해 포착되는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직접적 반응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붙으려 하지만, 십자가를 붙잡음에 허점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기팅 전략을 따라 오감을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